

# 젠트리피케이션 걱정 없는 양림동 만든다

## 남구·세입 상인·건물주

### 골목경제 활성화 상생 협약

### 임대료 상승 억제 등 협력

광주시 남구 양림동 일대 상인·건물주와 자치단체가 젠트리피케이션과 과도한 임대료 상승 등을 막기 위해 상생의 손을 잡았다.

26일 남구와 양림상인회 등에 따르면 남구는 이날 양림동행정복지센터에서 양림동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재생 뉴딜의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해 임대인 대표, 임차인 대표 등과 '양림동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

한 상생 협약식'을 진행했다.

남구는 특정지역의 건물 값과 임대료가 갑자기 올라 원주민이 타지역으로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예방하기 위해 양림동 일대 상인과 건물주, 임차인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양림동에 동지를 틈 삼가는 모두 200곳으로 식당·카페 50%, 사무실·약국·병원 30%, 마트·잡화상 20% 등으로 구성돼 있다. 상인의 70%는 세입자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병내 남구청장을 비롯한 상인회 관계자 60명과 건물주 20명, 임차인 10명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따른 과도한 임대료 및 자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 협력을 다짐했다.

협약서에는 양림동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해 상인회와 건물주 대표, 임차인 대표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 노력하고, 양림동에서 청년 창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들은 상가 임차인의 장기 영업을 위해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호객 행위와 바가지 영업을 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협약기간은 2021년 1월까지다.

양림상인회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명세를 탄 관광지의 경우 원주민이 임대료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쫓겨나는 일이 비일비

재하다"면서 "우리 양림동에서는 이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상호 협력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물주와 임차인, 상인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상생협력이 필수"라며 "이번 상생협약은 양림동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중요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구는 지난 2017년에도 사직동 통기타거리 라이브 카페 임차인과 건물주들이 골목경제 활성화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5년간 임대료 동결하는 등 상생협약을 체결한 바있다.

/김현경 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전남작가회의(회장 김완)가 26일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5-18 망언 규탄 설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5-18을 모독한 자유한국당 세 명의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5-18망언자 제명하고 한국당 석고대죄하라"

광주전남작가회의 규탄 설명서...왜곡 처벌법 처리도 촉구

광주전남작가회의(회장 김완·작가회의)는 "5-18을 모독한 세 명의 망언자를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하라는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데도 자유한국당은 '일부의 원'의 책임으로만 몰아가고 있다"며 "세 명의 망언자를 즉각 징계하고 석고대죄하라"고 주장했다.

광주전남작가회의는 26일 오전 11시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회원과 시민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5-18 망언 규탄 설명서'를 발표했다.

작가회의는 이날 발표한 설명서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80만 광주 시민들이 전두환 신군부 쿠데타 세력의 광우학살과 군사독재 정권의 반민주적 폭압에 맞서 피 흘리며 싸운 자랑

스러운 역사"라며 "오월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르는 이유도 오월영령과 민주, 인권, 평화, 대동세상에 바탕을 둔 광주정신을 기리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가 나서서 반역사적 반민주적 의식을 가진 일부 세력을 즉각 퇴출하고 '5-18역사왜곡 처벌 특별법'을 빠른 시일에 제정, 공포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날 설명서 발표장에서는 김남주 시인의 '학살1' 낭송과 아울러 박종화 민예총 회장의 '백년이 걸려도 오월적폐 척결' 서예 글씨 퍼포먼스가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광주 대형 유치원 2곳중 1곳만 에듀파인 신청

12곳 신청 않고 버티기

새학기부터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원아 200명 이상의 광주 대형 유치원 2곳 가운데 1곳이 제도 시행을 코앞에 두고도 교육당국에 도입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듀파인은 교비 등 자금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유치원 전자 회계시스템으로,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이후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이 결정됐다.

2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에듀파인을 도입해야 하는 대형 사립유치원 24곳 가운데 12곳만이 에듀파인 사용 신청서를 교육청에 제출했다. 에듀파인 도입이 1년 유예된 원아 200

명 미만 중·소형 사립유치원 22곳도 자발적으로 도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에듀파인을 사용하는 유치원에는 노후 컴퓨터 교체비(유치원당 2대), 교재 교구비(학급당 20만원), 노후환경 개선비(원당 500만원 이내)를 지원하고 학급운영비도 추가(월 5만원)로 지급한다.

의무대상 사립유치원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받는다.

시교육청은 세차례 시정명령 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5~15% 정원을 감축하고, 행정처분을 계속 거부하면 고발하기로 했다. 교육청 감사, 공모사업 지원 배제, 원장 기본급 보조비(월 최대 52만원)와 학급 운영비(학급당 월 최대 40만원) 지원 중단 등 불이익도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06 달뜨기 01:39  
해질녘 18:26 달지기 12:08

### 봄비

구름 많다가 낮부터 흐려져 밤에 비 시작되겠다.

광주	4/14	보성	3/12
목포	4/12	순천	6/14
여수	7/13	영광	1/12
나주	2/13	진도	3/12
완도	5/13	전주	3/12
구례	2/13	군산	2/10
강진	4/13	남원	3/12
해남	2/13	홍산도	5/9
장성	3/13		



###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1.0	북동~동	0.5~1.0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5	북동~동	0.5~1.5
남해 앞바다	북동~동	0.5~1.0	북동~동	0.5~1.0
남해 서부 앞바다(동)	북동~동	0.5~1.5	북동~동	0.5~1.5
남해 서부 앞바다(서)	북동~동	1.0~2.0	북동~동	1.0~2.0

### ◇ 생활지수

보통	뇌출중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목표	간조	만조
	00:29	08:08
13:18	20:07	
여수	09:00	02:52
	21:00	14:40

### ◇ 주간 날씨

28(목)	3/1(금)	2(토)	3(일)	4(월)	5(화)	6(수)
☀	☀	☁	☁	☀	☀	☀
5/14	1/13	3/12	4/11	3/11	2/12	2/12

## 전남대 의대 동문들 故 윤한덕 유공자 지정·추모사업

전남대 의대 동문들이 고(故)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국유공자 지정과 추모사업을 추진한다.

동문들은 십 수년간 공무원 신분으로 국내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헌신해 온 윤 센터장이 순직하면서 유족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을 우려해 후원회도 꾸렸다.

전남대 의과대학 동창회는 최근 윤한덕 추모기념회를 꾸려 유족에 대한 후원과 국유공자 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윤 센터장의 정신을 기릴 다양한 추모 사업을 논의 중이다. 추모기념회는 5억

원 조성을 목표로 광주일보를 비롯한 지역 일간지에 광고를 내고 모금을 시작했다. 광주·전남과 서울, 부산·경남 등지에서 많은 동문들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가 윤 센터장을 국유공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이후, 지역에서는 물론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조속한 유공자 지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윤 센터장은 설 연휴인 지난 4일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 사무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채희중 기자 chae@

## 조선대 강동완 총장 또 직위해제...'소청 심사 청구'

조선대 이사회가 강동완 총장을 다시 직위 해제했다. 강 총장은 불복할 것으로 보여 교육부 소청 심사가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학교법인 조선대 이사회는 26일 정기회의를 열어 오는 4월 30일까지 두 달간 강 총장을 직위 해제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교수 총괄, 교직원 감독, 학생 지도 등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대학 측은 전했다.

이사회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강 총장 직위를 해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최근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처분을 취소한 바 있지만 법원은 직위 해제가 문제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 태양광발전소 연계 ESS에너지저장장치

-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태양광 발전소에 ESS 설치시 REC 가중치5.0배
- 설치방법 : 본인부담10%·용자90%
- 1년거치 14년상환 (1개월이내 설치완료)

**제품**

LG ESS 삼성SDI SAMSUNG

**ESS · 설계 · 시공**

ESS통합시스템 15년 효율보증서 발행 (무정전 전력 공급장치)

경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 자료

태양광 발전소에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대폭 확대

- 태양광 +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사(가) 기준치 50 부여 -

정부와 지자체, 에너지산업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 산업부 장관 4개 단행(신규·전력·전남·제주) 에너지산업 활성화 공동협력 체결
- 에너지산업 활성화 공동협력 체결을 통해 전면적인 규제 정비 개시
- 지자체, '에너지산업 특별조례' 제정 추진
- 시군에 예산장려 등 대규모 프로젝트(4조원) 추진 가속화에 공동 노력

**전국 지사·대리점·영업자 모집**

대표전화 1577-8963  
전남지사 010-6838-3366  
광주지사 010-5655-5678

산·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주)성광에너지**

주소 | 순천시 중랑로 317 2층  
전화 | ☎061-752-7000 Fax | 061-751-6000  
총괄본부장 | 010-9896-9754 010-8605-2740